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원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 11:1-15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거짓과 진실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9월 10일	9월 17일
김현아	장헬렌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강단에서 어느 설교자가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강단에서 아주 자주 언급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 문구가 성경구절인 줄 아셨다는 분들도 보였습니다.

우선 성경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무나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움 힘이 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의지도 선함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인간 무용론입니다. 인간 불신론입니다. 인간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인 것이고 사랑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오늘도 이 시대 기독교는 인간에게서 소망을 찾으려 하고 인간에게서 어떤 긍정적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마치 어떤 긍정적 에너지로 만들어낸 해피엔딩의 결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 에너지와 행복한 삶이라는 철학에 눈이 멀어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이념과 사상을 교묘하게 복음에 물 타기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막8:18)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지식의 알팍함이 깨어져 갈 때 내가 진짜 아는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는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으로 나오고 깊은 묵상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님으로 발견되십시오.